

임실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무료·65세 이상 약품비 50% 지원

임실군이 민선 7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접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실군은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민선 7기 핵심공약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받으려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실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등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은 약품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4만5000원에, 만50세 이상~64세 이하 군민들은 약품비 9만원만 부담하고, 별도의 접종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군은 지난 5일부터 보건의료원 및 각 면 보건지소에서 신청순 신청자 접수 후 570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종하지 못한 군민들은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매년 백신구입 등을 통해 추가 접종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포진이란 맑은 글자 그대로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신경대를 따라서 신체에 띠 모양의 발진

과 수포를 만드는 데서 유래했다.

사람 몸의 등뼈 부근에 있는 신경절에 잠복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대상포진은 평생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고가로 접종할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강원도 원주서 옷 발효식품 선진지 벤치마킹

임실군이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임실·순창 옷발효식품가치창조 사업은 전북도가 공모한 '2017년 지역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지원받게 되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5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7일 군에 따르면 옷나무 재배농가의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이번 벤치마킹에는 행정과 사업단, 옷나무 재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원주시의 옷을 활용한 가공, 유통시설과 옷나무 재배농장 현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원주뜨뜻' 김기영 대표의 '옷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사례'와



임실군은 옷 발효식품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주 옷 문화센터' 김상수 센터장의 '옷 전문문화체험 행사 및 옷칠 공예 활성화'특강 및 시설견학 등이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옷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칠재배 및 채취 기능 전수자인 안영배 농가의 우수농장 견학을 통해 농가의 재배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심 민 군수는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은 우리 군이 중점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사업 중 하나"라며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단과 농업인이 함께 옷나무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모색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멋과 끼로 놀자' 개최

9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사)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최중섭, 이하 생문동)는 오는 9일, 향토회관에서 군민문화축제 '멋과 끼로 놀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해 관내 동호인들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갖는다.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계층이 참여해 군민 화합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하모니카 앙상블, 동계 이쁘니 합창단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개회식과 축하인사, 2부 장수우리춤 등 9개 동호회 팀의 공연, 3부 전문공연팀인 SNF 세현, 진필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향토회관 로비에서는 생문동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현재 생문동은 53개 동호회와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순창을 대표하는 문화단체중 하나다. 지난 제13회 순창장류축제에서 부무대를 책임져 관람객 유치에 큰

축을 담당한 바 있다.

최중섭 생문동 회장은 "이번 군민문화축제는 동호회 회원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것 뿐 아니라 군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문화행사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생문동 회원들은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강천산 등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산동면 등구마을 범용 콤바인 수확작업을 했다.

범용 콤바인 최초 콩 수확

남원시, 노동력 절감·농작업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농업인들의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관내 농협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을 최초로 추진했다.

지난 11월 초 산동면 등구마을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남원농협에 공급된 범용 콤바인 수확작업을 시연해 본 결과 2필지 5,620㎡ 콩 수확작업에 5~6일정도 시일이 걸린 작업이 단 몇시간에 이루어져 참여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범용 콤바인 공급 지원에는 도

비 2,450만원, 시비 5,710만원, 농협 자부담 5,440만원 등 총사업비 1억3,6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 가을철 수확기부터 본격적으로 농촌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준무 농정과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발작물 기계화에 개별 농가들이 구입할 수 없는 농작업 대행이 그동안 매우 절실했었다며,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된 이번 사업 계기를 통해 계약재배 등 지역농협과 연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국화분재전시회를 300여점 작품 등 전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9일까지 3일간 '국화분재 전시회'

남원시는 사람의 공장 앞 요천둔치에서 제 7회 국화분재전시회를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펼친다.

국화분재반이 펼치는 전시회는 매년 가을 국화향기를 가득품고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키워온 개인 및 단체작품 30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장은 작품인 석부작, 목부작, 모양목, 직간작 등 개인작과 조별로 만든 형상작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색과 갖가지 형태를 가진 국화작품 감상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년 국화분재반 수강생을 1월말 모집해 3월에 수업을 시작해 상토만들기, 삼목하기,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매달 2번씩 20회 수행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이환중 소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추억을 선사한 원예활동생활화 연구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9일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사람의 공장 요천둔치에서 국화분재 전시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행사로, 남원농업 발전 및 미래산업 먹거리 발굴을 위한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한 미래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생활자원 분야는 소규모창업사업장 및 각종 사업추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과물 및 각종 가공품을 전시 및 생활개선회 60주년 활동내역을 홍보하며,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생산제품 선호도 조사와 시식이 있을 계획이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상담소 운영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중간지, 평야지, 고랭지 권으로 구분, 지역의 선도농업인을 소개하고 성공사례발표 및 질문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권역별 우수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독려

임실군이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독려하고 나섰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임신, 출산 관련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군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출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을 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원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